

<書 評>

THE ACCUMULATION OF CAPITAL

by

Joan Robinson

崔 日 煥

I.

著者が序文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本書가企圖한點은 무엇보다도從來의價值,價格論을中心으로한靜態理論에 대하여人口의變化,資本의蓄積,技術의變化를包含하는時間의經過過程에서經濟의全體的인運動을把握하는動態理論의出發을指向한點이라할수있다.過去100年間の經濟學者들은지금까지너무나價值價格問題에만執着하여經濟全體가 어떠한法則으로서어떻게發展하는가하는것을 거의無視하여왔다. 말하자면 J. H. Clapham이「經濟學의빈 상자」가운데에서비웃고있는無味乾燥한形態主義에 젖어왔던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靜態理論의溫室을破壞하고現實的인失業의諸原因을究명한 Keynes의「一般理論」은全體的인雇傭問題라든가全體的인產出量問題를取扱하였지마는역시 거기에는資本蓄積量이一定하고生産技術이一定하다는 등의靜態的要素가包含되어있었던것이다. Robinson의「資本蓄積論」은 이와같은靜態的要素를動態化하여 Keynes理論을한층더擴充시키려는野心作이라고 말할수있다.

먼저 그의著述順序에 따라서「資本蓄積論」의概要를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第一篇은蓄積의分析에 必要한諸概念 및 諸範疇, 즉所得의種類,富의意味,貨幣의意味,資本과所得,消費와投資,均衡의意味等,에對한論議를包含하고 있다.

第二篇 長期의 資本蓄積은 本書의 中心部分을 包含하고 있다. 그 論述 方法은 가장 嚴密한 單純한 假定으로부터 더욱 複雜한 것으로 進行하며, 다음 段階로 進行하기 前에는 各段階에 있어서 理解할 수 있는 것은 全部 알수 있도록 하는 方法이다. 第二篇 第一部の 技術水準이 同一할때의 蓄積은 이와같이 詳述되는 가장 重要한 諸命題를 包含하고 있으며, 따라서 本書의 殘餘部分은 이 第一部の 周圍에 있는 여러가지 複雜한 條件付의 諸問題를 取扱하고 있다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第一部에 있어서 이루어진 하나의 單純化는 어떠한 發展段階에 있어서도 이루어지는 硬直的인 技術係數의 假定이다. 따라서 消費의 Pattern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勞動設備에 對한 比率은 資金 및 利潤과는 無關係하게 주어진다. 第9章에 있어서는 技術進步가 이 假定下에 取扱되고 있다. 第二部に 있어서는 이 假定은 除去되고 資金水準이 技術選擇에 미치는 影響이 論議속에 取扱되고 있다. 第三部に 있어서는 技術進步의 分析이 資金이 技術에 미치는 影響의 分析과 다시 結付되어 있다. 第18章은 지금까지 論述되어 온 諸命題를 要約하고 있다.

第三篇은 不確實性이 支配하고 將來에 對한 期待가 現在의 經驗에 비추어, 무거운 負擔을 주고 있는 經濟에 있어서의 發展을 取扱하고 있다. 期待의 이 狀態는 經濟活動에 대하여 短期的인 動搖를 惹起시킨다. 年年의 投資率에 있어서의 諸變動의 關係 및 그 長期的趨勢는 第22章에서 取扱하고 있다.

第四篇은 金融과 貨幣制度를 取扱하고 있다. 經濟生活에 있어서는 이 分野의 特定形式의 制度(例를 들면 中央銀行法)가 큰 役割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목에서는 現實經濟의 諸制度, 諸規則이 갖고 있는 特定形式에 對하여 解明이나 評價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그 作用이 一般的인 樣式으로 詳細히 敘述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理論의 進展이 利潤中에서 消費되는 部分이 없다는 假定下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第五篇에서는 金融財産의 取得者를 導入하고 있다. 이곳에서 비로써 지금까지와는 反對로 利潤中에서 消費되는 部分이 있다는 것을 認定하므로써 逆進的으로 더듬어 올라가 이제까지의 理論이 어떻게 修正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考察하고 있다.

第六篇에서는 地代가 導入된다. 따라서 土地의 稀少性을 認定함으로써 第五篇에서와 같은 摸索過程을 밟고 있다. 本篇의 終章『報酬의 遞増 및

遞減』과 나머지 二篇『相對的價格』과『國際貿易』은 現在 經濟學的 教理中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제목은 論題에 어떠한 新鮮한 것을 寄與하려고 하였다기보다 오히려 그 領域과 蓄積問題의 領域間的 關聯을 表示하기 위하여 附加된 것이다. 끝으로 몇개의 覺書가 諸種의 論題에 附加되어 있는데 이것은 自身の 諸概念을 辯護하고, 또한 그것이 다른 若干의 分析方法和 어떻게 關聯하고 어떻게 乖離하는가를 表示하기 위한 것이다.

I.

Robinson은 本書의 中心部分인『長期的 資本蓄積』理論을 展開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假定을 하고 있다.

1. 指數問題가 아무런 困難을 惹起하지 않는 想像的經濟를 想定한다. 즉 勞動者는 모두 同一하고, 消費를 위하여 購入되는 諸商品은 時間의 經過過程에서 變化하지 않으며, 어느 一定한 生産技術은 特殊한 設備를 必要로 하며, 短期의 狀態는 設備의 存在量이 주어져 있는 狀態이다.

2. 現實의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는 技術의 變化는 恒常 이루어지고 있다.

3. 長期的影響을 短期的影響에서 分離하기 위한 有効한 方策은 平穩(tranquility)의 諸狀態下에서 發展하는 經濟를 想像하고, 任意的 어느 時點에서 가질 수 있는 將來의 期待가 실제로 滿足되고 있다고 假定한다.

4. 理論의 第一段階에 있어서는 天然資源의 要因은 捨象한다.

5. 勞動力과 資本蓄積과는 두개의 獨立要因으로 取扱한다.

6. 經濟社會의 階級構成(2篇—4篇)은 企業家和 勞動者의 二階級으로 構成된다.

7. 前述한 想像的經濟에 있어서는 資本主義的Rule은 完全히 確立되어 있고 또한 長期間 支配하고 있다.

8. 嚴密한 自由放任主義가 支配하고 있다. 따라서 政府의 經濟的干涉은 없다.

9. 議論의 第一段階에서는 取扱할 수 없는 重要な 若干의 複雜한 問題를 除外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假定을 設定한다. ① 當該經濟는 孤立的으로 存在하는 閉鎖體系이다. ② 特定諸商品의 全生産規模 或은 經濟全體로서의 總規模에서 發生하는 節約은 全然 存在하지 않는다.

以上과 같이 Robison은 K. Marx가「資本論」第二篇 第三章『社會的總資本의 再生産 및 流通』部分에서 理論展開를 위하여 假定한것과 거의 同數의 假定을 設定하므로써 蓄積의 모델世界를 高度로 抽象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單純한 모델世界에서 著者は 理論을 精密化한 後 要約的인 結論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① 技術進步率과 勞動力의 增加率은 一定한 利潤率이 恒久的으로 維持될 수 있는 한 經濟의 產出高의 成長率을 支配한다. 潛在的成長比率(年間 產出高의 百分比로 본 產出高의 一人當의 增加分)은 雇傭成長의 百分率과 一人當 產出高成長의 百分率²⁾의 合과 近似的으로 같다. ② 潛在的成長率이 實現될 경우에는 그 經濟는 黃金時代다. ③ 黃金時代의 諸條件은 成長率이 恒常的이라는 點이 必要하다. ④ 黃金時代의 諸條件은 技術進步가 中立的이어야 한다는 것을 必要로 하며, 따라서 實質資本比率은 一定한 利潤率에 있어서 不變한다. ⑤ 一定한 利潤率과 可變的인 實質資本比率과를 갖는 準黃金時代는 理論的으로는 생각할 수 있으나 遞減的인 實質資本比率(技術의 負의 機械化 또는 技術進步가 持續的으로 資本節約的 偏倚를 갖는)을 準黃金時代가 實現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遞增的인 實質資本比率(機械化程度의 上昇, 또는 技術進步가 持續的으로 資本使用的 偏倚를 갖는)을 갖는 準黃金時代에는 一時的으로는 實現될 수 있지만은 長期的으로 持續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⑥ 黃金時代의 諸條件은 資本存在量에 對한 年間 置換投資의 比率이 一定하다는 것을 必要로 한다. 그 結果 資本財 存在量의 年令構成은 成長比率과 妥當한것이 된다. ⑦ 黃金時代의 諸條件을 純投資가 一定한 百分率로서 投資됨으로서 資本의 存在量이 一定比率로 成長하여야 한다. 이 結果 資本財의 存續期間은 平均的으로 一定하다. ⑧ 黃金時代에 있어서는 正常生産能力의 年間成長의 百分率은 成長比率과 같다. 但 正常生産能力의 年間 絕對的成長率은 어느 黃金時代로부터 다른 黃金時代로 移行함에 따라 雇傭勞働者 一人當의 正常生産能力과 同一한 比率로 變化하고 있다. 一人當의 正常生産能力에 대하여 一人當의 어느 資本價值(商品으로 測定한)가 對應한다. 資本價值의 年間成長의 百分率은 成長比率과 같다. 但 年間 資本成長(年間純投資)에 더욱 높은 絕對的比率를 갖는다면 그것은 任意的인 時點에 있어서 現存하는 資本의 價值가 比例的으로 더욱 높은 것에 對應하고 있다. ⑨ 더욱 높은 成長率은 보다 낮은 機械化程度와 關聯性을 갖는 傾向이 있다. ⑩

더욱 높은 機械化程度는 產出高單位當의 資本值의 大小에 關聯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더욱 높은 賃金과 보다 낮은 觀念的利子와는 資本財의 費用에 相反하는 諸影響을 미칠것이기 때문이다. ⑪ 靜態라 한 것은 成長比率이 零이라는 黃金時代의 特殊한 경우다. (勞動과 技術이 一定) 利潤中에서는 消費가 없다는 假定에서 이때 利潤率은 零이며, 賃金은 純 產出高 全部를 吸收한다. 이것이 經濟的至福의 狀態(A Condition of Economic Bliss)이다. ⑫ 成長率은 一定한 利潤率로서 恒久的으로 維持될 수 있는 最高의 資本蓄積率을 表示한다. ⑬ 더욱 낮은 比率로 蓄積을 하고 있는 經濟는 失業의 成長을 經驗하고 있다. 이 失業은 家族當 就勞時間의 短縮에 依하여 部分的으로 또는 全面的으로 吸收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⑭ 蓄積率은 成長率에 一時的으로는 뒤늦어질는지 모르지만 그 以後에는 蓄積率은 成長을 急速히 따라갈 것이다. 또한 失業勞動豫備軍이 여전히 存在할 경우에는 一時的으로는 成長率을 追越하고 따라서 失業量을 減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⑮ 失業勞動豫備軍이 存在하지 않을 境遇에도 一時的으로는 資本은 成長率보다 더욱 急速率로 蓄積되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機械化程度를 上昇시킬 것이다. 이때에는 그 經濟는 長期間에 걸쳐 利潤率의 低下를 經驗하고 있으며, 蓄積率은 減退하여 成長率에 接近한다. 成長率이 零인 特殊한 경우에는 그 經濟는 至福에 接近하고 있다. 이 經過段階에 있어서는 利潤率은 加速的인 蓄積率을 갖는 準黃金時代의 諸條件에서 一定하게 머무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⑯ 成長率의 單一回만의 變化는 새로운 黃金時代를 可能케 한다. 增大한 成長率에 適當한 새로운 黃金時代에 到達하기 위하여서는 投資部門에 있어서 正常生産能力의 比率이 增加하여야 한다. 新黃金時代로 接近하는데 適當한 가장 急速한 蓄積率이 進行하기 위하여서는 一時的으로는 消費는 舊黃金時代가 持續하였을때의 消費보다도 더욱 低下하지 않으면 안된다. 反對로 低下한 成長率에 經濟가 調整되어 간다면 失業 또는 消費增加의 期間이 이터날 것이다. ⑰ 偏倚된 技術進步의 一局面——즉 그 後에 中立的進步가 따라올때——은 한 推移期間을 지난뒤에 相異한 諸特徵을 갖는 新黃金時代의 到來를 可能케 하는 一狀況을 造成한다. 新黃金時代의 成長率이 舊黃金時代의 成長率과 同一하다면 利潤率은 同一하나 實質資本比率은 다르다. ⑱ 成長率 또는 技術進步의 偏倚에 있어서의 頻繁하고 不規則的인 諸變化는 平穩을 不可能케 함으로서 黃金時代를 위한 條件을 破壞한다. 事實 現

實的으로는 普通 그렇다) ⑲ 平穩의 缺如는 資本의 數量의 意味를 正確히 定義하는 것을 不可能하게 한다. ⑳ 成長率이 아무런 攪亂도 없이 安定된 경우에도 淸(芽)축에는 變태가 있다. 總資本存在量이 增加함에 따라서 競爭은 鈍化하고, 蓄積에 對한 衝動은 弱하여지며, 따라서 經濟는 黃金時代로부터 轉落하여 停滯狀態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여기에서 Robinson이 말하는 黃金時代 (golden age)라 함은 技術進步가 中立的이어서 生産時間의 Pattern을 變化시키지 않고 不斷히 進行하며, 競爭의 Mechanism이 自由로히 作用하고, 人口가 恒常的으로 成長하고, 또 蓄積이 모든 利用可能한 勞動力에 대하여 正常生産能力을 갖는 設備를 供給할 수 있을만한 速度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利潤率은 不變하며, 一人當 產出高와 함께 實質賃金水準은 上昇傾向을 갖는다. 이때에는 經濟體系는 아무런 內部的矛盾을 內包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狀態를 黃金時代라 한다.

Ⅲ.

지금까지 論述한것을 簡單히 整理하여 보면 Robinson은 Harrod나 Domar보다 훨씬 廣範한 分野를 吸收하고, Marx의 二部門分割, 資本의 有機的構成, 利潤率低落의 方向等を 包括하여 그 위에 또한 技術의 革新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長期資本蓄積에 있어서의 問題의 焦點으로 設定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 結論으로서 技術進步에 있어서의 資本使用的偏下——利潤率의 上昇, 資本節約的偏倚——利潤率의 低落, 中位的革新——利潤率의 一定, 다시 優秀企業家에 依한 새로운 技術의 採用으로 上述한 바와 같은 論理的經過를 거쳐 끊임없이 特殊利潤의 獲得에 依한 長期資本蓄積의 可能性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이點은 「經濟發展의 理論」의 著者인 J.A. Schumpeter가 發展의 契機를 新機軸 (innovation)에 求하고, 恐慌을 이와같은 innovation이 이루어질 수 있는 創造的 破壞過程으로 看做한것과는 좋은 對照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와 같은 Robinson의 資本蓄積論은 그 以前의 모든 學問的 遺産을 全般的으로 包括하려는 野心과 學問에 對한 뜨거운 情熱과 冷徹한 頭腦로서 조심스럽게 理論을 다루어 나가는 傳統的인 英國의 溫健한 理論的手法과 그 性格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問題의 資本蓄積論의 著者인 Rosa Luxemburg와 같이 理論의 明快性, 理論의 歷史性,

날카로운 理智的 感覺이 缺如되어 있는 點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마즈막으로 同著書를 現代經濟理論의 視覺에 비추어 볼때 問題될만한 것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첫째 靜態分析과 動態分析의 結合問題

둘째 Model世界와 現實世界

셋째 經濟發展과 產業의 構造變動과의 關係

넷째 現實에 即應的인 Keynes의 巨視的 概念을 오히려 매우 抽象的으로 取扱한 點 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